

근기 맞게 다양한 수행법 지도

“어느 날, 객이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
직지선방 원장 설곡 스님이 이 지지를 묻자, 답하는 대중들이 없었다.
“선(禪)은 모르는데서 시작해요. 선은 알리고 하는 것도 앞의 대상도 아니지요. 그럼 얼마만큼 몰라야 할까요? 철두철미하게 몰라야 해요. 은산철벽처럼 확실히 몰라야 해요.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하지 않고, 매일 대중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참나’를 바로 찾아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 채 살면, 그야말로 동물적 삶이죠. 선공부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알리고 하는 거예요.”

#소참법문으로 공부 점검
8월 23일 오후 7시, 청주 대한불교수도원 직지선방. 재가선객 10여 명이 50분 참선정진, 10분 포행이 끝나자, 설곡 스님의 소참법문(小參法門: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선법문)이 바로 이어졌다.
“늘 것 다 놓고, 먹을 것 다 먹으면 마음공부 못해요.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공부가 되겠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해요.”
경쾌하고 당부는 간접했다. 매주 화요일 한 차례 모이는 재가선객들의 참선모임이지만, 마음공부에서만큼은 출·재가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스님의 수행관이 배어있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의식이 수궁해야 해요. 그래야 의식의 농도가 짙게 돼 공허함을 경계할 수 있죠. 그러면 화두가 성실하게 살아있게 돼, 예리한 칼날이라도 그 화두 의식으로 들어설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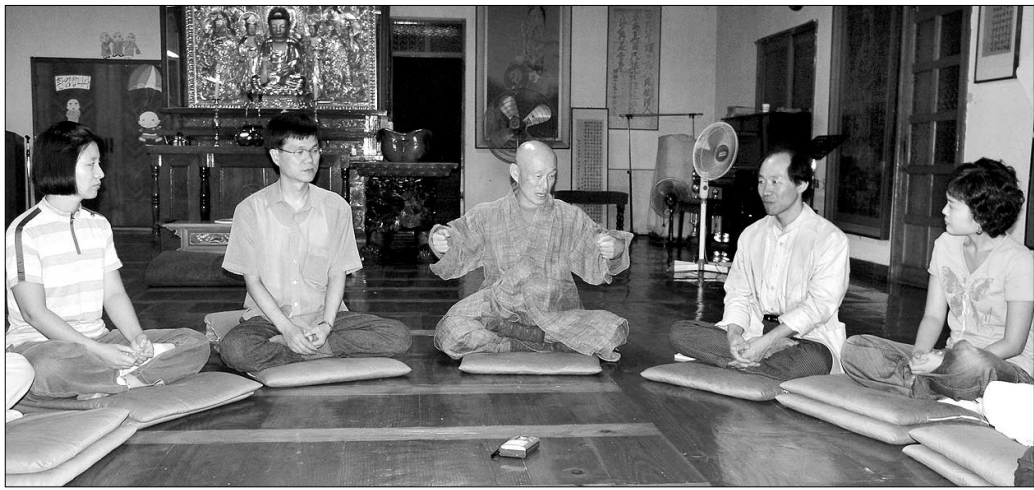
#경계를 만나면 경계를 바로 본다
그럼, 직지선방에서 수행하는 재가선객들은 어떤 자기변화를 경험했을까?



참선 정진 하고 있는 직지 선방의 재가불자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선은 본래는 안내 자료를 받으실 겁니다.
받은길 아바타 센터 직지선방 본래는 안내 자료를 받으실 겁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혜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scen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① - 청주 대한불교수도원 직지선방



직지선방 원장 설곡 스님이 참선을 마친 불자들에게 수행자의 자세에 대해 소참법문을 하고 있다.

6년째 참선수행 해온 홍진숙(43·청주 상당구 수동)씨는 “선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받아도 될 받고, 갖고 있어도 그 기간이 짧아졌다”며 “경계에 부딪쳐도 그것을 바로 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호복(42·청주 상당구 우암동)씨의 경험담도 마찬가지였다.
“놓아버려라”는 스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마치 ‘너는 누구인가?’란 물음과 같았어요. 사실 선수행을 하면서 경계가 올 때마다 두려웠어요. 또 마음자리부터 흔들리는 내 모습도 걱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한 물건’을 찾는 화두 참구과정을 멈출 수가 없게 됐죠. 후회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한 자리를 꿰뚫어 지키는 불상에서 배웠어요. 어느 누군가가 와서 깨부수려고 해도 끈적이는 불상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죠.”

#54년 역사의 재가 수행도량
청주 대한불교수도원 직지선방은 지난 1952년에 문을 연 역사가 긴 시민선방이다. 한국전쟁 중에 개인한 직지선방은 ‘선(禪)의 냄새마저 사라진 총복복고기에 선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장건주 벽산 스님의 서원이 담겨 있다. 은해사 주지 법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도 출가 전에 이곳에서 정진했었다.

이 같은 재가자 도량으로서의 가풍은 선방의 지리적 여건에서도 확인된다. 열 걸음 들어서면 산사 같고, 열 걸음 나서면 도심 같은 도량의 위치가 바로 그것이다. ‘산중불교’의 경건성과 ‘도심불교’의 활발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직지선방의 수행 분위기는 자유롭다. 현대인이 겪는 자기존재에 대한 성찰, 동시대의 문화흐름 속에서 불교수행이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수행프로그램에 담아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직지선방은 지난해 겨울에 선 제초도 도입, 몸 수련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신체의 건강함도 중시하면서 참선정진을 하기 위해서였다.
직지선방은 특히 간소한 수행법 외에도 초심자들의 근기와 인연에 맞게 다양한 수행법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설곡 스님은 재가불자에게 맞는 위빠사나, 경건 공부 등을 간소한 수행의 공부과정으로서 병행할 것을 권하며 수행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직지선방 법우회장 이성도(51) 한국교원대 교수는 “선방에서는 간화든 목조든 위빠사나 수행법에 제한 없이 특정한 수행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누구든지 침묵과 고요 속에서 정진하고, 부담 없이 다음 주에 다시 올 수 있게 만드는 수행분위기가 바로 직지선방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www.bsdcw.net (043)256-2655
글·사진/청주=김철우 기자

금강선원, 선하불교대·기초참선반 개강
금강선원은 9월 5일 서울 개포동 선원 법당에서 21기 선하불교대학 신입생 및 7기 기초참선반 개강식을 개최한다.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불교대학과 기초참선반은 오전 10시~오후2시, 오후 8~10시에 각각 실시되며, 지도는 선원장 혜거 스님이 맡는다. 등록비는 불교대학 6만원, 참선반 10만원. (02)445-8484

한국위빠사나선원, 기초과정 지도
한국위빠사나선원은 8월 22일~10월 12일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5시 총 14회에 걸쳐 제7차 위빠사나 기초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제7차 초보자 과정은 호흡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느낌을 알아차리고 또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배울 수 있다. 또 위빠사나 기초수행법도 직접 지도받을 수 있다. (02)512-5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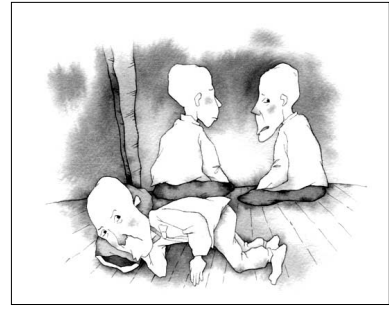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2> 선사들의 수다

지대방 한담은 성역이 없다. 위로는 불 조부터 아래로 행자까지의 야사(野史)를 다루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방위로 터치하다가 사이사이에 우스개 소리로 양념도 한다. 잡담은 머릿 속을 어수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또 법답으로 이어질 때는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선어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해제 후 마음맞는 도반끼리 함께 만행길을 나서는 것은, ‘벗이 수행의 전부’라는 부처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출가생활의 큰 즐거움이다.
하지만 ‘떨어져서는 죽고 못 사는’ 어느 도반이 인도로 배낭 성지순례를 같이 갔는데 ‘나갈 때는 함께 가더니 들어올 때는 각각 오더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척박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맞추어 가며 긴 시간을 함께

먼저 아무 선사도 없었다. “조그마한 나뭇배를 하나 얻어 낚시꾼과 함께 앉아 한 평생을 보내고 싶다.”
별다른 욕심도 없고 은둔자적인 기질이 다분하다. 아니나 다를까, 뒷날 법난을 만나 속박차원으로 약저호에서 뱃사공 노릇을 하였다. 어쨌거나 타고난 품성 자체가 소박한 것 같다.
이어서 흥산 선사가 말했다. “큰 도시에 살며 절도사에게 스승의 예우를 받으면서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평생에 앉아서 금 그릇은 그릇에 담긴 밥과 찬을 먹으면서 한 평생을 지내고 싶다.”
누군들 이런 마음이 없겠는가. 그런 속 마음과는 달리 선종의 ‘무소유’라는 가풍 속에서 이런 불온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흥산 선사는 어찌 보면 자기의 본마음을 남에게 억지로 가리지 않겠다는 그 순수



함께 만행길 떠난 덕산 선사 제자 셋 ‘수처작주’ 의지 수다로 우회 표현

다닌다는 것이 어찌 뉴욕한 일이겠는가. 덕산 선사 밑에서 공부한 설봉의존(雪峰 義存 822-908)스님과 암두전할(巖頭全壽 828-887)스님, 흥산문수(興山文遂 848-908)스님은 자주 함께 다녔다.
어느 겨울날 폭설을 만나 외딴 암자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짝없이 몇 날밤을 같이 지냈다. 고지식한 암두 스님은 내내 꽃잎이 앉아 좌선을 하였고, 느긋한 설봉 스님은 맨날 누워서 잠만 잤다. 보다 못한 암두 스님이 “흥산 스님과 행각할 때도 곳곳에서 누를 끼치더니, 또 잠만 자면서 나를 번뇌롭게 한다”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설봉 스님은 “맨날 참선한다고 품만 잡고 있으니 뒷날 사람들 떠나 흘러 갔다”고 뉘네 목소리로 한마디했다. 지칭구에 못 이겨 자다가 일어나 눈을 비비며 하품 속에서 내뱉은 말이겠지만 언중유골(言中有骨)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객실에서 함께 묵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각각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게 되었다

Sale! 과일의 왕 **두리안**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 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아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www.durianshop.com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미륵은 진정 우리 곁에 있는가

일곱 번째 완성작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 1 아람경에서 말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 6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 7 극락세계는 진정교 서방세계에 있는가?
-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시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재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우과 끝을 밝힌다고 하시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법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겠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해조음 海潮音】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 불교대구회관 2F Tel 053-624-5586 Fax 053-624-5587 E-mail bubryun@hanmail.net